

2020 국별 진출전략

불가리아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2020년 EU 2차 기금 종료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증가 기대	4
나. 유로존 가입을 위한 ERM II 2020년 가입 예상	5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6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6
가. 정치 환경	6
나. 경제 환경	7
다. 산업 환경	8
라. 정책·규제 환경	9
2. 시장 분석	10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0
나. 교역	11
다. 투자진출	13
라. 프로젝트	18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9
가. 교역	19
나. 투자	21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2
III. 진출전략	24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4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5
3. 한-불가리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0
4. 진출 시 유의사항	34
참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5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7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8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39
부 록	
對불가리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0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최근 4년간 평균 3.6% 이상의 경제성장이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 전망

- 2015년 이후 4년 연속 3%대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EU 경제성장률을 상회
 - 2009년 세계 금융위기, 2014년 현지 상업은행 도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음
 - 2010~2014년 평균 경제성장률 1.1%에서 2015년 3.5% 성장 후 성장세 유지
 - EU 기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주요 도시 내 뉴타운 형성 등 건설·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라 외부충격이 없는 한 경제성장 지속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7.2	7.2	7.1	7.1	7	7	6.9
명목 GDP	십억 달러	56.8	50.2	53.2	58.2	65.1	66.6	70.8
1인당 명목GDP	달러	6,780	7,216	7,722	8,350	8,984	-	-
실질성장률	%	2	3.5	3.9	3.8	3.3	3.2	2.8
실업률	%	11.5	9.2	7.7	6.2	6.2	5.9	5.7
소비자물가상승률	%	-0.9	-0.3	0.1	2.8	2.7	3.1	2.7
재정수지(GDP대비)	%	-3.6	-2.8	1.6	0.8	0.1	-1.7	-0.3
총수출	백만 달러	27,940	24,322	25,566	30,434	32,312	33,594	35,209
(對韓 수출)	"	96	59	90	67	106	-	-
총수입	"	31,630	27,232	26,656	31,299	34,987	36,074	38,202
(對韓 수입)	"	108	94	124	129	180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3,689	-2,910	-1,089	-865	-2,675	-2,480	-2,993
경상수지	"	705	-17	1,377	1,782	3,010	2,974	3,131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61	1.79	1.86	1.63	1.71	1.74	1.6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83	1.37	3.36	2.78	2.04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16	18.2	8.4	14.7	4.9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EIU, 불가리아 중앙은행(1인당 명목 GDP, 해외 직접투자, 외국인 직접투자)(2019년 10월 7일 기준)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2020년 EU 2차 기금 종료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증가 기대
- ERM(European Exchange Rate Mechanism) II 2020년 가입 예상

가. 2020년 EU 2차 기금 종료에 따른 프로젝트 발주 증가 기대

불가리아, 2014~2020년 기간 122억 유로 규모의 EU 기금 배정

- EU 기금은 EU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위해 EU 집행위가 회원국에 제공하는 지원금
 - 동 기금은 7년 단위로 배정되며, 불가리아는 2014~2020년 기간 동안 약 102억 6,900만 유로 규모의 2단계 기금을 배정받음

불가리아의 2단계 EU 기금 수혜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배정액		
	합계	EU 기금	정부 예산
구조결속지역개발 기금 합계	8,752	7,465	1,287
농어촌개선기금 합계	3,165	2,562	603
기타 기금 합계	295	243	52
총 계	12,213	10,269	1,943

자료 : EU 기금 정보관리 사이트(2019년 10월 7일 기준)

2020년 기금 소진을 위한 대형 인프라 공사 다수 발주 예상

- 배정 받은 EU 기금은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경우 잔액을 반납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20년 기금 소진을 위한 다수 프로젝트의 입찰 발표가 기대
 - 2016년 대통령선거, 2017년 총선 등 정권 교체 기간으로 행정 공백이 있었으며, 2018년 상반기 EU 순회 의장국 수행 등으로 프로젝트 입찰 지연
- 프로젝트 발주 시 유럽투자은행(EIB) 등과 연계하여 발주될 것으로 예상
 - EU 기금은 집행위에서 제공하는 기금과 불 정부 예산을 매칭해서 구성하지만, 정부의 자체 예산 부족으로 유럽투자은행(EIB) 등과 연계 프로젝트 발주 예상

나. 유로존 가입을 위한 ERM II 2020년 가입 예상

* 환율조정제도(ERM II) :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환율조절 장치. 자국 통화와 유로화의 변동 폭을 $\pm 15\%$ 로 제한하며, 불가리아가 ERM II에 가입한 후 최소 2년 이상 현지화 레바(Lev)와 유로화 간 적절한 환율을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유로존 가입이 가능함

불가리아의 ERM II 가입 2020년으로 연기

- 2018년 7월 유럽 집행위는 불가리아가 2019년 ERM II에 가입하는 실행 계획 승인
 - 불가리아의 재무부 장관은 불가리아가 2019년 ERM II에 가입할 경우 이론적으로 2023년 1월 1일에 유로전에 가입할 수 있다고 언급
 - 불가리아는 원래 2010년부터 유로존 가입을 희망했으나, 금융위기와 유럽발 경제 위기 등 외부 요인들로 인해 가입이 지연
- 불가리아 정부는 2019년 6월까지 ERM II 가입 실행 계획을 추진했으나, 주요 은행의 건전성 부문에서 가입 기준 불충족으로 ERM II 가입이 지연됨
 - 불가리아가 ERM II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 체제 개선뿐만 아니라 ECB가 현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무건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함
 - 하지만, 불가리아 주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무 건전성 평가에서 2개 은행이 부적합 판단을 받으며, ERM II 충족 기준을 맞추지 못했음
- 따라서, 불가리아는 연초 실행 계획보다 1년 늦은 2020년 ERM II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 불가리아 중앙은행의 현지 은행에 대한 재무 건전성 개혁 노력에 따라 가입 시점이 2019년 4분기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는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2020년 불가리아의 ERM II 가입에 대한 기대 효과

- 불가리아의 통화 안전성 증가로 무역, 투자 증가 기대
 - ERM II 가입은 불가리아의 통화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현지 투자, 무역 거래 시 발생하는 환율 리스크를 낮춰주게 됨
- 국가 신용등급 향상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감소
 - 신용등급 평가기관인 Mood's와 Standard&Poor's는 불가리아가 ERM II에 가입 시 현재보다 국가 신용등급(BBB-/S&P)이 한 단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불가리아 정부는 ERM II 가입 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보수 성향 연립 정부 지속. 제조업 투자유치 희망하지만 사법 분야 개혁 필요
- (경제) 민간소비, 수출 및 투자 증가로 인한 3%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
- (산업)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건설 경기 호황,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분야 주목
- (정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쿼터 완화,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 투자유치

가. 정치 환경

우파 성향 연립 정부의 국정 운영 당분간 지속될 전망

- 2017년 총선을 거치며, 우파 성향의 연립 정부 구성
 - － 2017년 총선 결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유럽발전시민당(GERB)이 극우성향의 애국 연합(UP)과의 연립 정부를 구성, 보이코 보리소프가 새로 출범한 연합 정부의 총리직(세 번째)을 맡음

2017년 제44대 총선 결과, 정당별 득표율

순위	정당명	득표율(%)	의석수	특징
1	유럽발전시민당(GERB)	32.65	95	제1여당, 중도우파, 친EU
2	사회당(BSP)	27.20	80	제1야당, 사회주의, 친러시아
3	애국 연합(United Patriots)	9.07	27	극우성향, GERB과 연립 정부 구성
4	시민권리자유운동(MRF)	8.99	26	중도우파, 터키계 정당, 영향력 감소
5	의지(Bolya)*	4.15	12	신규정당, 향후 정치적 영향력 확대 기대

*불가리아 전체 의석수 240석

자료 : 불가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연립 정부 내 분열 조짐 보이ना, 제1여당 중심 연립 정부 당분간 지속
 - － 2019년 7월 Attack이 애국연합(UP)에서 탈퇴하는 등 연립 정부 내에서도 정책에 대한 정당 간 입장 차이로 분열 조짐이 보임
 - － 하지만, 2017년 연립 정부 집권 이후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유럽이사회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제1당인 유럽발전시민당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연립 정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제조업 및 미래 산업 분야 투자유치 노력, 하지만 사법 분야 개혁 필요

- EU 기금 활용 인프라 프로젝트와 유망 분야 투자유치를 희망
 - 2020년까지 EU 기금을 활용하여 철도 개보수, 그리스 국경 간 도로 연결, Shipska 터널 건설, 소피아-바르나 고속도로 구축, 인근국과 가스관 연결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경제성장 견인 노력
 - 불가리아 정부는 IT, 아웃소싱 서비스, 금융기술, 자동차 부품, 제약, 생명과학, 전자제품, 전자상거래 분야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
 - 2016년 7월 사법부 개혁(안) 통과, 2018년 1월 부패방지법 적용, 2018년 3월 자금세탁 방지 법안 발의 등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틀 마련 중
 - 하지만 유력 정치인과 경제세력이 연계하여 여전히 부정부패가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에 비해 법, 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음
- * 불가리아 정부의 부정부패 및 관리 능력 미흡은 잠재 투자자들의 진출을 저해하는 요소임

나. 경제 환경

민간소비, 수출 및 투자 증가로 인한 3% 이상의 경제성장 계속

- 2010~2014년 평균 경제성장률 1.1%에서, 2015년 이후 3%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
 - 2009년 금융위기와 2014년 불가리아 상업은행 도산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4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실업률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GDP 증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소비 및 수입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불가리아의 경제성장, 실업률, 1인당 GDP 변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GDP 성장률(%)	1.8	3.5	3.9	3.8	3.1
1인당 GDP(BGN)	11,594	12,340	13,206	14,280	15,363
실업률(%)	10.7	10.0	8.0	7.1	6.1
수입(백만 BGN)	23,802	24,541	24,088	27,715	29,602

자료 : 불가리아 중앙은행(2019년 10월 7일 기준)

다. 산업 환경

불가리아의 산업 구조(2018년 기준)

- 산업별로 3차 산업이 68.4%, 2차 산업이 27.4%, 1차 산업이 4.2% 차지
 - 세부적으로는 광공업·제조업·에너지 분야가 전체 GDP의 23.1%를 차지, 다음으로는 도소매·운송·숙박업(22.6%), 교육·복지·보건·행정방위(14.1%) 등 순임
 - EU 자금 유입에 따른 불가리아 건설 경기 호황으로 건설과 부동산 분야가 전년 대비 10.8%의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농업·임업·어업은 전년 대비 3.4% 감소

2018년 불가리아 산업별 규모, 비중, 전년 대비 증감률

연번	분야	규모(억 BGN)	GDP 대비 비중(%)	전년 대비 증감(%)
1	광업·제조업·에너지	216.4	23.1%	1.5%
2	도매업·운송업·숙박·외식업	211.3	22.6%	9.0%
3	교육·복지·보건·행정방위	132.2	14.1%	10.5%
4	부동산	97.7	10.4%	10.8%
5	금융보험	63.9	6.8%	9.4%
6	정보통신	57.5	6.2%	7.5%
7	전문과학·기술	56.5	6.0%	6.4%
8	건설	40.0	4.3%	10.8%
9	농업·임업·어업	39.4	4.2%	-4.3%
10	기술·공연·기타 서비스	20.3	2.2%	5.1%
총계		93.51	100%	6.7%

자료 : 불가리아 통계청(2019년 10월 7일 기준)

불가리아 핵심 산업

- (IT/소프트웨어) 유럽의 소프트웨어 하청개발 1위 국가
 - 소프트웨어 하청개발에 특화된 나라로 숙련된 IT 인력을 기반으로 약 3,500개의 개발 업체들이 있으며, 70% 이상을 서유럽, 북미 등에 수출 중
 - 관련 협회, IT 인재 육성을 위한 Sofia Tech Park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IT 분야 아웃소싱 (HP, IBM, 코카콜라, SITEL사 기 진출)이 주목할 만한 분야임
- (자동차 부품) 외국인 투자기업 증가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
 - 제조업 상위 40개사 중 15개 기업이 자동차 부품 생산, 매출은 약 15억 유로
 - 완성차 제조공장은 없으며, 서유럽 등 투자기업으로 벤츠, 아우디, BMW와 같은 인근국 글로벌 완성차기업에 납품 중
 - 불가리아 정부는 전기차(부품)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음

라. 정책·규제 환경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고용 쿼터 완화

- 불가리아는 2018년 5월 ‘Labour Migration and Labour Mobility Act’를 개정을 통해 EU 비회원국민에 대한 고용 규제를 전면 완화
 - 기업 전체 고용 인원의 10%로 제한됐던 EU 비회원국민의 고용 쿼터를 각각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5%로 확대
 - 동 조치는 외국인 고용 확대를 통해 불가리아 내 고기능 노동력을 유치하고, 현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 과거 한국기업이 현지에 신발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한 투자진출을 검토했으나, 공장 운영을 위한 최소 노동력 확보에 실패하여 투자진출을 포기

유로존 조기 가입을 위한 안정적 통화제도 운영

- 2002년부터 불가리아는 고정환율제를 시행, ‘1유로 = 1.95583레바’로 고정
 - 자체 통화정책 능력 부족으로 유로화와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 중으로 현지의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환율 리스크가 적음
- 2020년 ERM II 가입을 위한 금융 체제 개선 노력
 - 2010년부터 유로존 가입의 전 단계인 ERM II에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금융위기, 유럽발 경제 위기 등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지연되었음
 - 불가리아 정부는 ERM II에 가입하기 위해 거시 금융 체제 개선, 지하경제 퇴치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 금융 체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임
- * 유로존(Eurozone) : EU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

해외 투자유치, EU 기금을 통한 산업 육성

- 불가리아는 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투자진출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경제부 산하 직속 기관인 불가리아 투자청(Investment Bulgaria Agency, IBA)을 운영 중이며,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편의 및 인센티브 제공
 - 특히 불가리아는 투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육성을 희망하며, 이로 인해 제조업 투자진출 시 상대적으로 확대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중임
- EU 기금 역시 불가리아 산업 육성정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 중임
 - 불가리아는 2014~2020년 기간 103억 유로 규모의 2차 EU 기금을 지원 받음

2 시장 분석

- 제조업 미약, 수입의존 경제, 지속적인 성장으로 공산품 수입수요 증가 기대
- 교역량, 수출입 모두 증가추세, EU 역내 교역 비율이 높음
-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투자유치 노력 계속
- 2020년까지 2차 EU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활용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제조업 기반 미약하여 외부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 일반 소비재, 의류기기, 주요 부품 소재 등 기술 기반 제품 수입
 - 불가리아는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뎠다.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
 - * 불가리아의 GDP 구성(2018년) : 1차 산업(4.2%), 2차 산업(27.4%), 3차 산업(68.4%)
 - 일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의 경우 현지 조립생산 공장이 있지만 핵심 부품 자체는 생산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인 구매력 증가로 수입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시장

- 인구 700만 명, 1인당 국민소득 약 8,000달러 수준의 작은 시장
 -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바이어는 재고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재고를 줄이기 위해 EU 역내 인근국에서 소량 주문하는 거래 관행을 보임
 - 작은 시장으로 독점 딜러가 유통망을 선점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거래부터 공급자를 대상으로 독점 거래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향후 시장규모 확대 및 수입수요 증가 기대
 - 최근 4년(2015~2018년)간 3.6% 이상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며, 동 기간 EU의 평균 GDP 성장률인 2.3%를 상회하며,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도로, 철도 공사 등 EU 기금으로 진행되는 인프라 공사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이며, 2020년까지 배정된 EU 기금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 예상
 -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GDP 상승, 현지 구인난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공산품 등의 수입수요 증가 기대

나. 교역

최근 불가리아 수출입 동향

- 2020년 불가리아 교역량은 937억 달러 전망(2019년 예상치 대비 약 11% 증가)
 - － 수출 458억 달러, 수입 479억 달러로 2018년, 2019년 대비 지속 증가 추세
 - － 2014년 상업은행 파산 등 위기 이후 201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
 - － EU 기금 활용 인프라 프로젝트 증가로 인한 관련 기자재 수입량 증가 및 불가리아에서 생산된 서유럽 하청제품의 재수출로 인한 수출실적 증가

불가리아의 대(對)세계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예상)	2020년(전망)
수 출	25,381	26,573	31,448	33,140	42,600	45,800
수 입	29,217	28,934	34,195	37,880	41,600	47,900
교역량	54,598	55,507	65,643	71,020	84,200	93,700
수 지	-3,836	-2,361	-2,747	-4,740	1,000	-2,100

자료 : (실적) Global Trade Atlas, (예상/전망) IHS Bulgaria Country/Territory Report(2019년 9월)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유럽 국가, 인근국에 대한 교역 비중이 높음
 - － 2007년 EU 가입 이후 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과도하게 높음
 - * (EU 역내 수출 비중) (2015) 65% → (2016) 66% → (2017) 63% → (2018) 68%
 - * (EU 역내 수입 비중) (2015) 64% → (2016) 66% → (2017) 64% → (2018) 63%
 - － 공산주의 시절 러시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비유럽 인접국 중에서는 러시아, 터키와 교역량이 많음
- 불가리아 조립생산 제품을 통한 대(對)유럽 교역량 증가
 - － 유럽 역내 국가 중 수출입 1위 교역 국가는 독일, 2위는 이탈리아
 - － 독일계 기업 백색가전의 핵심 부품을 수입 및 조립 생산하여 재수출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섬유원단 수입 후 봉제 가공하여 의류 등 재수출하고 있음
 - －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 후 정제하여 판매하고 있어 러시아 수입량이 높으며, 터키는 과거부터 교류가 많았고, 중동과 유럽의 관문인 지리적 특성으로 교역내용 반영

불가리아 국가별 수출입 순위 및 비중

(단위 : %)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독일(13.4)	독일(13.1)	독일(13.0)	독일(12.3)	독일(14.9)	독일(12.4)
2	이탈리아(9.0)	러시아(8.9)	터키(8.9)	러시아(10.2)	이탈리아(8.7)	러시아(9.7)
3	루마니아(8.6)	이탈리아(7.9)	이탈리아(8.0)	이탈리아(7.3)	루마니아(8.6)	이탈리아(7.5)
4	터키(7.7)	루마니아(6.9)	루마니아(7.9)	루마니아(7.1)	터키(7.6)	루마니아(6.9)
5	그리스(6.9)	터키(6.2)	그리스(6.2)	터키(6.2)	그리스(6.7)	터키(6.1)
6	프랑스(4.4)	그리스(4.8)	벨기에(4.1)	스페인(5.3)	프랑스(4.0)	스페인(4.7)
7	스페인(2.8)	폴란드(4.04)	프랑스(4.0)	그리스(4.4)	벨기에(3.5)	그리스(4.3)
8	벨기에(2.69)	중국(3.98)	스페인(2.9)	네덜란드(3.7)	네덜란드(2.8)	중국(4.1)
9	네덜란드(2.66)	스페인(3.96)	러시아(2.7)	중국(3.7)	중국(2.7)	네덜란드(3.8)
10	영국(2.5)	헝가리(3.8)	중국(2.5)	폴란드(3.6)	스페인(2.5)	헝가리(3.4)
한국	41위(0.34)	31위(0.43)	52위(0.21)	32위(0.38)	41위(0.32)	29위(0.47)
일본	58위(0.17)	34위(0.36)	60위(0.15)	34위(0.35)	58위(0.15)	32위(0.43)
중국	13위(1.9)	8위(3.98)	10위(2.5)	9위(3.7)	9위(2.7)	8위(4.1)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7일 기준)



품목별 수출입 동향

○ 수출입 주요 교역 품목

- 원류(정제 후 수출),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 일반 차량 등을 수입

* 석탄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원 수입이 많고, 서유럽에서 하청 받은 제품에 대한 원자재 수입이 반영되며,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생활필수품 등을 서유럽에서 수입 중

- 전자기기, 구리 및 구리제품, 광물성 연료, 기계류, 사료 등을 수출

* 구리 광산에서 채취한 자원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통적 농업 국가로 사료용 밀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서유럽에서 하청 받은 전자기기 및 기계류 등을 가공하여 재수출

불가리아의 품목별 수출입 순위 및 금액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입					수출				
	HS 코드	품목	2016	2017	2018	HS 코드	품목	2016	2017	2018
1	27	광물성 연료	3,577	4,771	5,047	85	전자기기	2,662	3,071	3,636
2	84	보일러, 기계류	2,994	3,600	3,952	74	구리, 구리제품	1,742	2,913	2,941
3	85	전자기기, TV	2,805	3,108	3,662	27	광물성 연료	2,299	2,984	2,803
4	87	일반 차량	2,184	2,420	2,810	84	보일러, 기계류	2,149	2,467	2,700
5	26	광, 슬레그	1,158	1,978	2,204	10	사료	1,140	1,075	1,217
6	39	플라스틱 제품	1,350	1,526	1,705	87	일반차량	853	900	1,045
7	30	의료용품	1,243	1,420	1,582	30	의료용품	852	977	1,029
8	72	철강	881	1,161	1,427	73	철강제품	541	984	1,007
9	38	화학제품	677	772	796	39	플라스틱류	761	862	982
10	74	동광	475	726	766	62	의류	951	886	897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7일 기준)

다. 투자진출

최근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외국인 투자는 약 5.37억 유로로 전년 대비 약 67% 감소
 - 2014년 불가리아 경제위기로 기존 투자금 회수내역이 반영되어 3.5억 유로 기록
 - 신규 투자금액은 2017년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최근 3년간 신규 투자금액 추이 : (2016) 13억 유로 → (2017) 9억 유로 → (2018) 12억 유로

불가리아의 Inbound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총계	347.4	2,000.9	927.2	1,618.9	537.1

자료 : 불가리아 중앙은행(BNB)(2019년 10월 7일 기준)

- 2018년 국가별 대(對)불가리아 투자 순위는 헝가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순임
 - 투자금액 기준으로 (1위) 헝가리(5.84억 유로), (2위) 네덜란드(1.45억 유로), (3위) 노르웨이(1.15억 유로), (4위) 독일(1.05억 유로), (5위) 벨기에(0.69억 유로), (6위) 프랑스(0.47억 유로), (7위) 스웨덴(0.31억 유로), (8위) 리히텐슈타인(0.26억 유로)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 불가리아는 동서양의 교차 지점이자 발칸 반도의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유럽, 러시아, 터키, 중동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 EU 회원국이자, NATO, WTO의 회원국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정부부채가 낮아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해줌
- 불가리아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율이 10%로 전 유럽 국가에서 가장 낮아 투자기업에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균 급여는 약 500유로로 낮은 임금과 저렴한 부동산 가격 및 수도, 전기세로 투자 매력도가 높음
- 많은 청년들이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공부하여 지식집약적인 산업에 강점이 있으며, 반대로 임금수준이 낮아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도 강점이 있음

투자유치 유망 분야

- 원가 절감을 위한 서비스 분야 아웃소싱, 고급 IT 인력의 효율적 활용 가능, 전자기기, 자동차 부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렴한 임금, 풍부한 자원 환경을 활용한 식품 분야가 유망함

투자유치 유망 분야, 특징 및 강점

분야	특징	강점
아웃 소싱	6만 명 이상이 아웃소싱 분야에 종사 2018년 기준 GDP의 4.8% 차지 2018년 기준 평균 연봉은 약 16,000 달러 수준	- EU, NATO, WTO의 회원국으로 대외 개방도 높음 - 부동산 임대료가 저렴하여 경제적 - 불가리아에서 평균 25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 제공
IT	5만 명 이상이 IT 분야에 종사 2018년 기준 GDP의 5.9% 차지 2018년 기준 평균 연봉은 약 20,000 달러 수준	- 전통적으로 IT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음 -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 - 매년 평균 4천 명 이상이 IT 분야 학사 취득
전자 · 기계	11만 명 이상이 기계·전자 분야에 종사 2018년 기준 GDP의 12.4% 차지 2018년 기준 평균 연봉은 7,000달러 수준	200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분야 - 저렴한 인건비로 숙련된 노동력 활용 - EU, 러시아, 중동과 접근성이 높음
식품	9만 명 이상이 식품 분야에 종사 2018년 기준 GDP의 10.7% 차지 2018년 기준 연봉은 약 7,000달러 수준	- 다양한 작물, 과일 및 채소 재배를 위한 기후 환경이 좋음 - 국토의 49%가 농경지 - 유럽, 러시아, CIS,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진출용이

자료 : 불 통계청, Capital News Data Base 자료 종합(2019년 10월 24일 기준)

분야별 투자진출 대표 기업

IT development	Outsourcing	Chemical and Metal Industry	Engineering	Food& Beverage
				
				
				
				
				
				

불가리아 투자유치 정책

- 불가리아 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조세감면) 고실업 지역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

- (부가세면제) 투자 실현을 위한 현물(자산) 수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고용보조금) 청년 및 빈곤층 고용 시, 고용청(The employment Agency)은 각 고용인의 고용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와 고용주세를 일정 기간 부담
- (R&D 지원사업) 불가리아 정부는 첨단 산업(High Technology) 및 R&D 투자를 적극 권장, R&D 분야는 불가리아 정부의 주요 투자 인센티브 수혜 분야

○ 투자 우대 프로젝트

- 교육 및 R&D 투자 우대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초기 투자를 시작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추가 투자금액이 초기 투자금액의 25%를 넘을 경우, 불가리아는 초기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제조업의 경우, 초기 투자를 시작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추가 투자금액이 초기 투자금액의 50%를 넘을 경우, 불가리아 정부는 추가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보조금 지원 가능
 - * 산업공단 지역에 1억 레바 이상 투자, 2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 산업 분야 첨단기술에 5,000만 레바 이상 투자, 7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 첨단 산업 단지 개발에 5,000만 레바 이상 투자, 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 지식기반, 교육, 의료, R&D 분야에 3,000만 레바 이상 투자, 50명 이상의 고용 창출
 - * 고실업을 지역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초기 투자금액 2,000만 레바 이상, 5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이후, 추가로 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한 경우
 - * 산업공단 지역의 경우, 초기 투자금액 2,000만 레바 이상, 5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이후, 추가로 5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한 경우

○ 투자등급 구분(Class A, B)과 인센티브 부여

- 투자금액, 투자 분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외국인 투자등급 기준

구분	A 등급(Class A)	B 등급(Class B)
제조업 분야 투자	5백만 유로 이상 (2백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 창출)	2.5백만 유로 이상 (1백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 창출)
고실업 지역 투자	2백만 유로 이상 (25개 고용 창출)	1백만 유로 이상 (10개 고용 창출)
제조업 중 첨단 산업 분야 투자	2백만 유로 이상 (25개 고용 창출)	1백만 유로 이상 (10개 고용 창출)
서비스 분야 투자	1.5백만 유로 이상 (0.5백만 유로 이상, 150개 고용 창출)	0.75백만 유로 이상 (0.25백만 유로 이상, 100개 고용 창출)
서비스 중 첨단 산업 분야 투자	1백만 유로 이상 (50개 고용 창출)	0.5백만 유로 이상 (25개 고용 창출)

주 : 금액 조건만 충족시키거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감안하여 등급 선정

자료 : 불가리아 투자청(2019년 10월 7일 기준)

**주요 경쟁국(일본, 중국) 투자진출 동향**

- (중국) Great Wall(장성기차) 완성차 공장 진출과 중단
 - 2008년 9,840만 유로를 투자하여 연간 약 5만 대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공장 설립, 중국의 첫 유럽 자동차 생산지였음
 - 당시 불가리아 Litex Motors와 중국 장성기차가 협력하여 투자진출 시도
 - 공산권 시절 자동차 생산지였던 Lovech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투자청으로부터 투자등급 Class A를 받음
 - 장성기차에서 만드는 차량이 유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2016년 파산 신청으로 공장 가동 중단
- (일본) Tokuda 병원 진출
 - 2006년 일본의 Tokushukai Medical Corporation 병원이 불가리아 소피아에 1억 2천만 유로 규모의 Tokuda 병원 건립
 - 소피아에서 가장 큰 외국계 병원으로 32개 진료실, 22개 수술실과 첨단 진단센터 도입 및 예방의학 센터 운영 중
 - 저렴한 운영비 대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유럽, 러시아 및 CIS 지역에서 1년에 약 8,000명의 환자가 방문함

**우리기업 투자 동향 및 사례**

- 2019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對)불가리아 투자 신고법인 수는 26개사, 투자 신고 건수는 총 132건, 투자금액은 약 2.2억 달러 수준
 - 1997년 현대중공업의 변압기 제조회사 인수, 2011년 태양광 발전 분야 투자진출 이후 우리기업이 불가리아에 투자한 금액은 거의 없음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신고건수(건)	123	4	2	2	1	132
신규법인(건)	23	2	0	1	0	26
신고금액	281,155	207	204	591	246	282,583
투자금액	224,920	171	45	273	246	225,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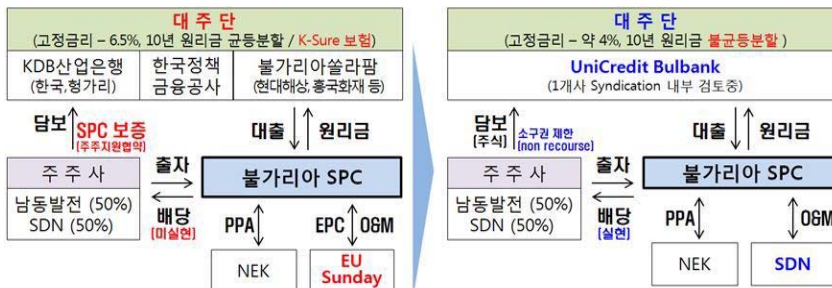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6월 말까지 반영)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 사례

■ 성공 사례 1. 태양광 발전(남동발전, SDN)

□ 태양광 발전소 투자 현황

- 진출 기업명 : 남동발전, 에스디엔(SDN) 합작 투자
- 설비 용량 : 41.62MW(ASM 20.14MW, RES 21.48MW)
- 위치 : 불가리아 Veliko Tarnovo 지역
- 착공/준공일 : 2010년 12월/2011년 12월(ASM), 2012년 2월(RES)
- 총 사업비 : 139,697천유로(2,229억)[환율 1,595원/유로]
* 변경 사업비 : 142,302천유로(2,206억)[환율 1,550원/유로]
ASM : 71,041천유로(1,099억)/RES 71,261천유로(1,107억)
- 사업구도



〈ASM〉



〈RES〉

🌐 불가리아 투자 유의사항

- 정부의 낮은 행정투명도, 관련 제도 미비는 투자진출의 악화요인
 - 행정기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및 일관성 없는 정책과 빈번한 법률 개정 등은 불가리아에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비해 조세감면,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 결여
- 투자유치 전담기관
 - (불가리아 투자청) 투자진출 희망 기업 대상 분야별 전문가 및 투자 유망 지역 추천

기관명	IBA(Invest Bulgaria Agency)
주소	31 Aksakov Str., 1000 Sofia, Bulgaria
전화번호	+359 2 985 5518
웹 사이트	http://www.investbg.government.bg

- (산업단지 공단) 투자 유망 지역 세부정보 및 현지시찰 필요 시 사전문의 가능

기관명	NCIZ(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주소	1, Angel Kanchev Str., 1000 Sofia, Bulgaria
전화번호	+359 2 890 2981
웹 사이트	http://www.industrialzones.bg

라. 프로젝트

한국기업에는 아직 생소한 시장, 수주 성공을 위한 전략 필요

- 불가리아 주요 프로젝트는 현지 및 EU 역내 기업이 대부분 수주하며, 제3국 경우 터키, 러시아가 일부 있지만 비중은 미미함
 - 불가리아는 터키계 인구가 10%를 차지, 터키계의 지지를 받는 정당도 있으며, 러시아는 과거 불가리아 교역 1위 국가로 공산권 시절부터 우호 관계 유지
- 최근 한국기업의 불가리아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험 부족 및 세부 기술 요건 미충족 등으로 수주에 난항을 겪고 있음
 - 2013년 ITS 프로젝트 수주 추진 시, 한국기업 발주 2개월 전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였으나, 기술 사양 간과로 입찰 참여에 실패
 - 소피아 지하철 3호선 입찰 시 입찰 발표 후 국내기업이 용접기술 요건 문제로 컨소시엄 구성 지연 및 입찰 참여 포기
 - 2017년 소피아 시내 E-Ticketing 프로젝트에 국내기업과 현지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진출했으나, 현지 핵심인사 대상 로비 부족으로 수주 실패
- 불가리아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부족하여 대부분 프로젝트는 현지 유력인사의 적극적인 로비가 프로젝트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편임
 - 불가리아는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나 일반 시민들의 관심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발주처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음
 - 이로 인해 발주처는 현지 유력인사로부터 기업을 추천 받아 프로젝트 실패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확실히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의 참여를 선호
- 하지만, 2019년 9월 볼 총리 방한, 2020년 한국-불가리아 수교 30주년 등 양국 간의 관심도 증가로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볼 총리 방한 경제사절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불가리아기업은 국내기업과 현지 주요 도시 수변 공원 환경개선 프로젝트 관련 논의 진행
 - 보리소프 총리 방한 직후, 한국기업 2개사가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소피아 지하철 1~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프로젝트(10백만 EUR 규모) 수주에 성공

가. 교역

 한국과 불가리아는 지속적인 교역량 증가추세

- 2018년 한-불가리아 교역량은 약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
 - 수출 1.7억 달러(27% 증가), 수입 1.8억 달러(16% 증가), 무역수지 적자 0.5천만 달러
 - 2015년부터 4년 연속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석유화학제품, 수송기계의 수출이 각각 42.2%, 28.2%로 급등했음
- 2019년 교역량은 2.5억 달러로 연말까지 약 3.0억 달러 예상
 - 8월까지 수출 1.0억 달러(전년 동기 9.1% 감소), 수입 1.3억 달러(전년 동기 32% 증가)
 - 비철금속 제품,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26.7% 감소했으며, 농산물의 수입이 2018년 동기 대비 430.8%로 급격히 증가

연도별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분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수 출	117,808	107,688	134,652	137,416	174,344	108,954
수 입	190,088	101,716	102,126	154,226	179,430	135,177
교역량	307,896	209,404	236,778	291,642	353,744	253,771
수 지	-72,280	5,972	32,526	-16,810	-5,086	-26,583

자료 : 무역협회(2019년 10월 7일 기준)

 품목별 대(對)불가리아 교역 동향

- (수출) 한국은 합성수지, 자동차, 전자 응용기기, 연제품 등 공산품 수출
 - PET병 생산 원료인 폴리에틸렌 합성수지 수출이 최근 5년간 1위 품목
 -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자동차 수입과 LED 위주의 전자 응용기기 수출
 - 의류 생산에 필요한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서유럽 하청 공장에서 사용
 - 금호, 넥센, 한국 타이어에서 차량용 타이어 수출
 - 기호식품 증가는 한국산 식품(건강음료 등)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세
 - 기구 부품은 휴대용 카드 단말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출이며, 단일기업으로는 가장 큰 금액을 수출하고 있음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합성수지	36	17.4	51	41.4	35	-2.4
2	자동차	18	5.7	24	32.2	15	17.9
3	전자응용기기	15	36.3	16	10.6	8	-29.8
4	연제품	9	-45.3	11	27.8	5	-38.9
5	인조섬유	8	36.5	7	-13.9	5	-4.2
6	고무제품	5	-14.1	6	10.1	4	-0.7
7	기호식품	4	197.1	6	49.6	4	-13.3
8	기구 부품	3	-8.4	5	54.3	3	5.9
9	플라스틱 제품	3	31.5	3	11.0	2	1.4
10	농기계	2	46.4	4	50.7	2	7.1

자료 : 무역협회 수출통계, MTI 3단위 기준(2019년 10월 7일 기준)

- (수입) 농산물, 동제품, 의류·가방, 수산가공품, 전기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음
 - 과거 식물성 물질인 사료가 최대 수입품목이었으나, 옥수수, 해바라기씨 등 곡실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아우로비스 구리 광산에서 나온 동판, 동괴 제품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유지
 - 서유럽 하청업체에서 제작한 의류를 한국에서 직수입하고 있음
 - 온도계, 자동제어기, 기타 계측기계는 꾸준히 수입하고 있음
 - 흑해에서 채취한 소라 가공품을 한국으로 수출
 - 전기 부품은 과거 수입량이 적었으나, 배전보드의 수출량이 2018년 급격히 증가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설명)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곡실류	6	190.4	32	460.3	47	1,336.0
2	동제품	19	532.1	22	13.3	21	39.0
3	의류	19	22.5	25	34.0	17	13.9
4	계측제어분석기	8	49.1	12	56.2	6	-26.8
5	수산가공품	11	21.2	8	-23.8	4	-1.4
6	전기 부품	2	-80.3	25	1,430.9	3	-82.5
7	기호식품	6	-3.5	5	-15.6	3	-35.3
8	식물성물질	28	45.6	3	-89.8	3	64.8
9	석유제품	0	80.2	0	665.2	2	63,684.1
10	신변잡화	2	-44.0	3	24.5	2	32.5

자료 : 무역협회 수출통계, MTI 3단위 기준(2019년 10월 7일 기준)

우리기업 수출 성공사례 및 시사점

- (건강음료) 시장 수요와 KOTRA 사업을 통한 성공적인 마케팅
 - 불가리아 건강음료 시장 확대와 더불어 한국산 알로에 음료수요 증가 추세
 - 불가리아 바이어는 2008년부터 일용 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를 수입 유통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과의 거래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약 350개 컨테이너 물량의 제품을 수입 중
 - 국내업체는 KOTRA 수출바우처 서비스 중 '해외홍보지원 서비스'를 신청, 독점 바이어와 협력하여 현지 판촉전 등을 시행
- (산업용 모니터) KOTRA 지사화 사업을 통한 적격 바이어 발굴
 - 지사화 업체 A사는 산업, 게임용 모니터 전문 수출업체임
 - 무역관 도움을 통해 불가리아 최대 게임기 제조업체 E사(매출액 규모 불가리아 15위 대기업)를 발굴, 국내기업의 제품이 가장 큰 공급업체로 인정될 만큼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킴
 - 유럽 경쟁사에 오더 물량을 뺏길 수 있었으나, 수출기업과 무역관 직원이 협업하여 적절히 대응한 결과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
 - KOTRA에서 진행하는 세일즈랩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지인을 지사장으로 고용하여 지속적인 거래선 관리를 진행
- (시사점) KOTRA 무역관의 도움을 통한 수출확대 가능
 - 불가리아는 시장규모는 작지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음
 - 하지만 적격 바이어 발굴, 가격 조건, MOQ 등 첫 거래 과정에서 경험 있는 무역관 직원의 도움으로 거래 성사 가능
 - KOTRA의 지사화 사업, 수출바우처 서비스 등 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현지 수출기반 확보 및 물량확대에 기여

나. 투자

한국-불가리아 투자 동향

-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투자액은 226백만 달러(수출입은행 2019년 3월 기준)
 - 전체 신고된 누적 건수는 132건, 법인 수는 26개로 나타나지만, 이중 18개사가 철수했으며, 현재 8개사만 영업 중에 있음
-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투자는 제조업 위주로 발전기 제조, 태양광 발전 분야에 집중
 - 투자액 대비 제조업 투자 비중은 73.8%로, 그 외 진출 초기 숙박업이 25.2%를 차지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 건, 천 달러)

분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신규건수(건)	65	31	22	5	-	4	2	2	1	132
신규법인(건)	13	9	1	0	-	2	0	1	0	26
신고금액	157,352	85,228	34,408	4,348	-	207	204	591	246	282,583
투자금액	103,718	57,149	59,681	4,372	-	171	45	273	246	225,655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년 6월 말까지 반영)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사례

- (투자 성공 사례)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작을 통한 투자진출
 - 2011~2012년에 걸쳐,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작투자로 42MW의 태양광 발전소를 현지에 건립(총 투자비 1억 5,400만 유로 규모)
 - 초기 진출 시 프로젝트 비용 대부분을 산업은행 용자로 조달했으나, 2017년 현지 상업은행으로 리파이낸싱 완료에 따라 이자율 감소와 이에 따른 순이익 증가
- (투자 실패 사례) EU 역내 서유럽으로의 인력 유출로 실질 노동력 부족
 - 2018년 해외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주문 제작 생산하는 한국기업 A사가 불가리아 내 유럽 수출용 신발 생산 공장 투자진출을 검토
 - 하지만, A사는 공장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5,000명)을 구하지 못해 투자진출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불가리아의 인력이 EU 역내 서유럽으로 유출된 것에 기인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한국-불가리아 외교 관계 현황

- 2020년은 한불 수교 30주년으로 양국은 1990년 3월 23일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주요 인사교류 및 문화·경제·통상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5년 5월) 한-불은 양국 외교 관계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2017년 10월) 韓 국무총리의 불가리아 방문 양국의 경제 분야의 협력 강화
 - (2018년 11월) 한국-불가리아 산업협력 위원회 개최
 - (2019년 9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 방한, 양국 교역 품목 다양화 및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협력 강화 논의(불가리아 총리로는 최초로 한국 방문)

경제·통상 분야 협력

- 불 총리 방한에 따른 양국 간 교역 품목 확대 및 주요 산업 분야 투자 확대

- 2019년 9월 25~27일 기간, 보리소프 총리가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 양국 간 교역 분야 확대 및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협력 논의를 진행
- 방한 기간 KOTRA는 불가리아 중소기업청(BSMEPA), 투자청(IBA)과 무역 및 투자 진흥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 2020 서울식품전 내 불가리아 국가관 구성, 한국의 투자유치 시스템 전수 등을 진행할 예정

에너지,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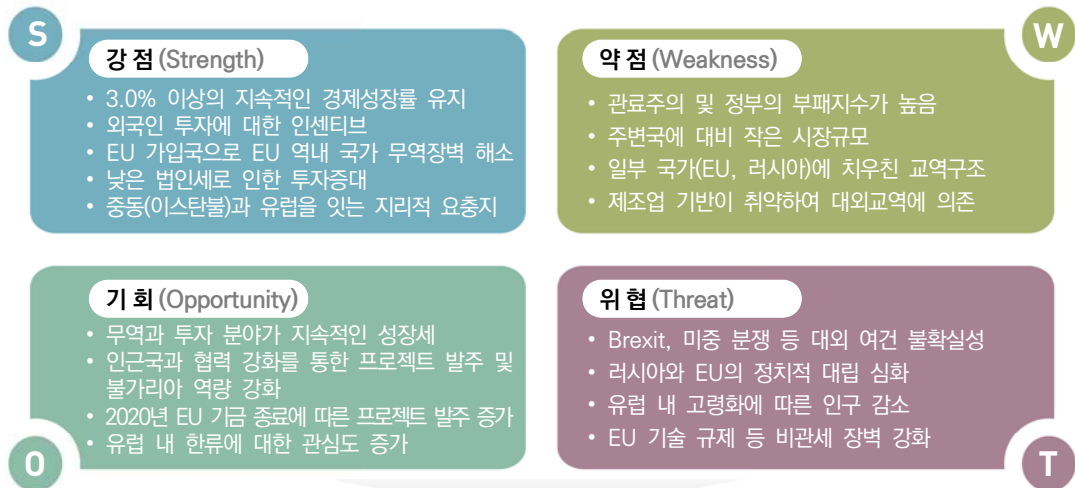
- (국방) 불가리아 고등 훈련기 교체 수요에 따른 국방 분야 산업협력 확대
 - 불가리아는 고등훈련기 L-39를 체코로부터 1987년과 1991년 도입하여 현재 12대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화에 따라 향후 5년 이후 교체 계획 중
 - 금년 8월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전투기(F-16V)를 8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방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 수요 발생했으며, KAI의 고등 훈련기 T-50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존재
- (과학기술) 국내 유휴 장비 이전을 통한 한-불 간 기술교류 협력 확대
 - 소피아 기술대학 내 국내 유휴 장비 이전 및 관련 장비 교육을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 강화를 시도 했으나, 부과세 등 현지 조세법 문제로 사업 취소
 - KOTRA·국내기관·불가리아 대학이 협력하여 유휴 장비 무상 이전 시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 등의 도입 노력을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 확대 노력 예정

Ⅲ. 진출전략

-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유망 소비재 중심 마케팅 강화
- 부실한 제조업 기반에 대응하는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 제품 수출확대
- 투자진출,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남동부 유럽 신시장 개척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불가리아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소비자 구매력 증가를 기반으로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위주 마케팅 강화	소비재 위주 시장점유율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 유럽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	유럽 내 생산 판매 채널 구축
WO 전략 (기회 포착)	• 인프라 공사 발주 증가로 프로젝트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프로젝트 조달 기회 포착
WT 전략 (위험 대응)	• 의료기기 등 경기 비탄력 제품 위주 수출	의료기기 수출, 현지 네트워크 확보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블로그 등 SNS 마케팅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안정적 경제성장률 유지, 실업률 감소, 임금상승으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
-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은 미미하지만 블로그 활용을 통한 SNS 전략 구상
- 저가 소비재 위주로 시장점유율 선점 및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현지 디스트리뷰터 발굴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안정적 경제성장률 유지, 실업률 감소, 임금상승으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
 - ‘Bulgarian Dream’ 등 1989년까지 공산주의 시절 소비 습관이 남아 있지만 METRO, IKEA 등 창고형 쇼핑몰이 생기는 등 자본주의의 대량 소비 경향 심화
 - 젊은 인구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서유럽으로 이주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서유럽으로 이주하지 않고, 현지에서 집, 차를 소유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중년층(30~44세)이 가장 중요한 소비층
- 블로그, You-Tube 등 SNS 인플로언서를 활용한 입소문 마케팅 증가
 - 불가리아의 온라인 유통시장은 타 국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지만 통신망이 발달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가격 및 제품 정보 검색
 - 소비자를 위해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카페가 활성화되고 있음
 - * (예시) BG-Mamma : 출산 여성을 위한 전문 블로그/OFFroad-Bulgaria : 40~50대 남성 대상 차량, DIY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는 한 유통 바이어는 무역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 유명 인플러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답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저가 소비재 위주 판매로 시장점유율 선점
 - 시장 및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재 시장 겨냥
 - 소득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에 민감하여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바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 위주 마케팅
-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현지 디스트리뷰터 발굴
 - 불가리아는 시장규모가 작아 소수의 업체가 독점하는 성향을 보임
 - 현지 디스트리뷰터 확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며, 시장 특성상 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량으로 필요할 때마다 주문함

2-2. 가처분소득 증가, 유럽 내 한류를 활용한 소비재 시장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일반시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재 시장 확대 전망
-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중·대형 할인매장 위주로 유통시장 형성 중
- 유럽 내 일고 있는 한류 boom을 활용한 K-Beauty 등 화장품 수출
-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건강기능식품 수출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소비재 시장은 2021년까지 현재 수준 유지 혹은 증가 전망
 - 일반시민의 소득수준 증가, 실업률 감소로 인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생활필수품, 식품 위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
 - 출산율 저조, 해외 이민자 수 증가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지만 소피아 위주 대도시 인구 집중현상은 소비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소비재 유통시장 구조
 - 과거에는 소형 슈퍼마켓 위주로 유통망이 형성됐으나,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점차 중대형 할인매장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일반 소비재, 화장품, 의류 등 품목별로 유통점이 전문화되는 현상을 보임
 - * 일반 소비재는 Kaufland, Fantastico, Lidle 등 할인 유통매장
 - * 화장품은 주로 약국에서 판매, 젊은 층 위주로 Sephora, DM, Illy 등 소형매장 인기

품목별 주요 유통업체 리스트

품목	기업명	특징	비고(온/오프라인)
의류, 신발	H&M	18개 매장 보유	오프라인
	LPP Group	15개 매장 보유	오프라인
	Temop	-	오프라인
	ZaraInditex	중가 브랜드 위주로 2016년 진출	오프라인
전자제품	Technomarket	2억 7,660만 유로 규모	온/오프라인
	Technopolis	5,490만 유로 규모	온/오프라인
	Zora	불가리아기업으로 34개 매장 보유	오프라인
온라인	Emag	온라인 전 제품 판매	온라인
	Ebay	온라인 전 제품 판매	온라인
	Amazon	온라인 전 제품 판매	온라인
화장품/약국	Apteka MEdea	약국, 서유럽 제품 판매	오프라인
	Apteka Mareshki	약국, 서유럽 제품 판매	오프라인
	DM	독일계 기업으로 화장품, 미용 제품 위주 판매	오프라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화장품) 유럽 내 한류 Boom을 활용한 화장품 등 K-Beauty 수출
 - 영국 등 서유럽 내 일고 있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 불가리아 현지에서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한국산 천연화장품 및 마스크 팩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불가리아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은 최근 4년간 평균 84% 급등
 - * 불가리아의 대(對)한국 화장품 수입(천유로) : (2015) 88 → (2016) 177 → (2017) 378 → (2018) 539
 - 유럽은 화장품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지정 및 CPNP* 사이트에 화장품 등록이 의무사항이며, 불가리아에서는 타 유럽 국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 CPNP: 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http://webgate.ec.europa.eu/cnpn>
- (건강식품) 알로에 등 건강음료 위주 수요 증가
 - 불가리아 건강음료 시장은 약 2억 유로 규모로, 불가리아 내 고령 인구증가에 따라 향후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인공첨가물이나 방부제가 함유되지 않은 천연 건강음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한국산 건강음료 수출로 이어짐
 - * 한국산 알로에 음료를 수출하는 국내업체는 KOTRA에서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해외홍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 중
 - * 불가리아 수입유통상의 경우 제품수입 이외에 현지 마케팅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기를 꺼려 하지만 수출 바우처 서비스를 활용, 일정 금액 이상을 수입하는 바이어에게 홍보협력을 제안하였으며, 주요 매장에 판촉전 등을 시행하여 꾸준한 시장점유율 유지 중

2-3. 노후기기 교체 수요를 타깃으로 한 의료기기 시장 진출**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 2020년까지 의료기기 시장규모 약 2.8억 달러 성장 기대
- 높은 의료기기 수입의존도와 노후화 기기 교체 수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잠재 수요 예상
- 가격 대비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2020년까지 의료기기 시장은 약 2.8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기대됨
 - 의료 분야 지출은 570만 달러, GDP 대비 0.5% 수준으로 동유럽에서 네 번째로 작은 시장, 의료 분야에 지출하는 금액이 동유럽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EU 회원국 내 65세 고령 인구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노후화된 장비 교체 수요의 시급성 등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 불가리아는 제조업 열위 국가로 의료기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노후 의료기기 교체에 따른 수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불가리아는 과거 구공산권 시절 개발된 의료기기의 기술 수준이 높았으나,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 자금력 부족,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생산 경쟁력이 부족함
 - 이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가 82.1%에 달하며, 정부 예산 부족으로 노후 의료기기에 대한 적절한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잠재적인 교체 수요 발생 기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단순 저가 중국산 대비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을 선호
 -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며, 중국산과 유럽 고가제품의 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음
 - * 현지 의료기기 수입업체 M사는 저가 중국산을 선호하던 과거와 달리 의료기기 구입 후 제품 설치, 교육 및 사후관리를 보장하는 한국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
- 공공조달 납품 경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와 네트워크 구축 필수
 - 불가리아 보건부에서 인증한 업체만 국공립·민간병원에 기기 납품이 가능하며, 대부분 공공 입찰로 납품이 진행되므로 현지 파트너의 도움이 필수
 - 의료기기의 경우 CE 인증이 있으면 바로 유통이 가능하므로 인증 취득 후 공공조달 납품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발굴이 필수임

3 한-불가리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자동차 부품 투자진출 통한 유럽 완성차 벨류 체인 진입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불가리아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외국 투자유치를 통한 주요 산업 육성을 희망
- 2019년 불가리아 총리 방한에 따른 한-불 간 투자 분야 협력 확대
- 제조업 분야 중 자동차 부품이 각광받고 있으며, 불 총리는 방한 기간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공장 투자유치를 적극 희망

불가리아의 경제발전 전략 및 주요 이슈

- 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분야 육성을 희망, 특히 산업의 전·후방 효과 및 고용 창출이 큰 자동차 산업 육성 희망
 - 불 투자청 스타멘 아네브 대표에 따르면 유럽의 한 완성차 기업이 불가리아에 완성차 생산 공장을 타진 중이며, 해당 공장 유치를 위해 노력 중
 - * 2008년 중국 장성기차와 Litex Motors 공동투자로 연간 5만 대 생산 규모 완성차 공장을 Loech 지역에 설립했으나, 유럽 안전 기준 문제 등으로 경영난에 따라 2017년 파산
- 2019년 9월 보리소프 불 총리 방한, 자동차 및 부품사의 투자진출 희망 표명
 - 9월 25~27일 동안 보리소프가 총리는 불가리아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 방한 기간 우리 정부와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
 - 특히, 동 기간 국내 주요 자동차 회사 및 부품사를 만나 불가리아 내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생산 공장 유치 희망 의사를 전달했음

협력의제 발굴 및 진출전략

- 자동차 부품 투자진출을 통한 유럽 내 완성차 벨류 체인 진입
 - 불가리아는 내 자동차 부품 관련 외국인 투자진출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은 대부분 유럽 내 완성차 생산 벨류 체인에 납품
 - 최근, 유럽 메이저 완성차 기업이 불가리아 내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 중으로, 해당 공장이 설립될 경우 불가리아 내 새로운 전기차 벨류 체인 형성 기대

불가리아 내 외국 투자진출 자동차 부품 기업

연번	기업명	특징
1	Teklas	- 유럽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2,000만 유로의 차관을 통해 투자했으며, 주요 고객사는 Mercedes, BMW, Audi
2	Vitte Automotive Bulgaria	- 차량 잠금 시스템을 생산하며, 독일계 기업의 투자로 설립 - Audi의 A6, A8 모델에 부품을 공급할 예정
3	Ber-Hella Thermal Control	- 독일 기업으로 Audi, BMW, Mercedes 등 프리미엄 완성차 대상 공조 시스템을 생산

자료 : 무역관 자료 종합

3-2. EU 기금 농촌 개선 프로젝트 분야 집중 수주

경제발전전략 이슈 및 전략적 가치

- EU 기금은 불가리아 경제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작용
- 2020년 2차 EU 기금(2014~2020년) 종료에 따라 기금 소진을 위한 다수 프로젝트 발주 예상
- 2019년 말 기준, EU 기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촌 개선 분야 집행률이 가장 낮음

불가리아의 경제발전 전략 및 주요 이슈

- EU 기금은 불경제성장의 주요 재원으로 2020년까지 미소진 시 반납해야 함
 - －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서 불가리아 정부는 20년까지 배정된 약 103억 유로를 전액 집행하기를 희망, 동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발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 2016~2018년 기간 대선(2016년), 총선(2017년), EU 집행위 의장국 수행(2018년) 등 정치적 이슈로 프로젝트 입찰 발표 및 기금 집행이 다소 지연 됨

불가리아의 2차 EU 기금 수혜 현황 및 집행실적(2019년 10월 기준)

구분	배정액 (단위 : 백만 유로)			집행실적(승인기준) (단위 : 백만 유로, %)	
	합계	EU 기금	정부 예산	승인금액	집행률
총 계	12,213	10,273	1,943	8,793	72.0
교통개선	1,887	1,604	283	1,585	84.0
환경개선	1,770	1,505	265	1,301	73.5
지역개발	1,543	1,312	231	1,352	87.6
혁신·경쟁력 강화	1,321	1,123	198	1,029	77.9
과학·교육 강화	701	596	105	527	75.2
인력개발	1,092	939	153	913	83.6
공공행정 강화	334	284	50	205	61.3
중소기업육성	102	102	-	102	100.0
구조결속지역개발기금 합계	8,752	7,465	1,287	7,002	80.0
어촌개선	113	88	25	68	60.6
농촌개선	3,052	2,474	578	1,560	51.1
농어촌개선기금 합계	3,165	2,562	603	1,628	51.4
기타 기금 합계	295	243	52	183	61.9

자료 : EU 기금 정보관리 사이트(2019년 10월 7일 기준)

협력의제 발굴 및 진출전략

- 기금 중 가장 비중이 크지만 집행률이 낮은 농촌 개선 프로젝트 진출 유망
 - － 농촌 개선 분야는 전체 EU 기금의 24%로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지만 19년 10월 집행률 51%(승인 기준)으로 전체 집행률 72%에도 못 미치고 있음

- 따라서, 2020년 기금 소진을 위해 해당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
- 한국 농기계, 스마트팜의 농촌 개선 프로젝트 진출 고려 가능
 - (농기계) 농촌개선 기금 가운데서도 농기계 공급의 비중이 크므로, 동 기금을 활용한 다수 프로젝트 발주 시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
 - * 현지 농기계 전문 무역상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농촌 EU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2019~2020년 사이 관련 분야의 정부 입찰이 집중 발표될 것으로 언급
 - (스마트팜) 2019년 5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지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이며, 특히 한국 스마트팜 기술은 기후 및 농업 환경이 유사한 불가리아에 적용하기에 유리한 편임
 - * 불가리아의 기후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사계절이 존재하며, 연 평균 기온은 8~11도(평지 12도, 산지 2.6도), 연평균 강우량은 700mm(평지 400~600mm, 산지 1,000mm)
 - * 특히,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영세 규모의 비닐 온실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불가리아와 같이 소규모 농장 위주의 유사 여건 국가로의 수출확대가 유리한 편임

4 진출 시 유의사항

경제제재 리스크	에이전트 컨설팅 비용
■ (현황) EU의 철강 세이프 가드 - EU 집행위는 2019년 2월부터 한국산 철강제에 대한 세이프가드 시행 ■ (대응전략) ☞ 철강제 수출 시 관련 세이프가드 확인 및 사전 정보 검토	■ (현황) 에이전트의 비용 과다 청구 - 프로젝트 수주 등을 위해 에이전트 계약 시 국내기업에 과다한 비용 청구 ■ (대응전략) ☞ 계약 체결 전 해당 에이전트의 신용도, 현지 평판, 소송 유무 확인 필요 ☞ 컨설팅 비용은 성공 베이스로 지급
대금 결제 조건	독점 거래권 요구
■ (현황) 바이어 T/T 결제 선호 - L/C 개설 절차 까다롭고, 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여 신용장 거래 기피 ■ (대응전략) ☞ 결제 시 선적 전 30%, 선적 서류 사본 송부 후 70%를 통상적으로 적용	■ (현황) 거래 초기 독점권 요구 - 거래 초기 시, 바이어가 독점 거래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 ■ (대응전략) ☞ 바로 독점권을 주기보다는, 거래 물량을 늘려가며, 바이어 역량 파악 필요
법률 리스크	현지 관행
■ (현황) 사법제도의 불투명성 - 동일 사안에 대해 판례가 쉽게 뒤집히는 등 사법제도의 신뢰도가 낮음 ■ (대응전략) ☞ 분쟁 발생 시 현지 영향력 있는 상공회의소와 협력 중인 로펌 활용	■ (현황) 최소 주문량이 매우 작은 편 - 서유럽과의 소량 거래에 익숙하여, 국내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대응전략) ☞ 최소 주문량 신축적 운영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61.8	대한수입액('18/US\$백만)	0.6
	선정사유	불가리아의 대(對)한국 화장품 수입은 59만 달러로 최근 4년간(2015~2018년) 연 평균 86%의 급성장을 보임		
	시장동향	온라인 시장과 같은 디지털 유통망 구매 증가한국산 천연 화장품, 마스크 팩에 대한 인기 높음		
	경쟁동향	한국은 화장품 수입 17위로 프랑스, 스웨덴, 루마니아, 독일, 이탈리아에서 제품이 수입됨		
	진출방안	화장품은 CPNP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경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 발굴 필수 (무역관에서는 CPNP 등록 경험을 보유한 현지 파트너 리스트 제공)		
품목명 2	HS Code	8708, 8412	수입관세율(%)	0
자동차 부품	수입액('18/US\$백만)	272.8	대한수입액('18/US\$백만)	0.8
	선정사유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중고차 위주 시장 형성, 높은 중고차 비율로 인해 부품 A/S 교체 수요 상시 존재		
	시장동향	현·기차 등 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		
	경쟁동향	한국은 자동차 부품 수입 24위로 독일, 루마니아,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 주요 수입국		
	진출방안	유럽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 구축, KOTRA 물류 지원사업 활용 등 제품 운송 시간 단축 및 바이어 재고 부담 경감 노력 필요		
품목명 3	HS Code	8541.40	수입관세율(%)	0
LED 조명	수입액('18/US\$백만)	39.4	대한수입액('18/US\$백만)	0.9
	선정사유	불가리아 내 건설 공사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제품의 전반적인 제품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EU의 백열전구 사용 금지 조치 시행에 따라 LED 조명 수요 증가, 공공기관 위주 교체 수요 존재		
	경쟁동향	한국은 LED 조명 수입 6위로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주요 수입국		
	진출방안	한국산 제품은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 협상 필요 대부분의 바이어가 최소 주문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필요		
품목명 4	HS Code	9018.90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18/US\$백만)	65.3	대한수입액('18/US\$백만)	0.3
	선정사유	2020년 EU 기금 소진을 위한 의료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관련 의료 기기 수입수요 기대		
	시장동향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경쟁동향	한국은 의료기기 수입 24위로 체코,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이 주요 수입국		
	진출방안	불가리아는 보건부에서는 2020년까지 EU 기금을 활용한 응급 센터 개보수와 같은 프로젝트 지속 발주 예정으로 의료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시장 진출 기대		

품목명 5	HS 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리튬이온전지	수입액('18/US\$백만)	49.6	대한수입액('18/US\$백만)	6.7
	선정사유	불가리아는 유럽의 주요 자전거 생산국 중 하나로 최근 전기 자전거 제조업 성황 및 유럽 수출 증가로 리튬이온전지 등 관련 부품 수요 증가 기대		
	시장동향	2018년 불가리아의 리튬이온전지 수입은 4,964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국산 전지는 대부분 산업용 기계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경쟁동향	한국은 리튬이온축전지 수입 2위로 1위는 헝가리		
	진출방안	불가리아 자전거 생산기업들은 자체 전기 자전거 브랜드를 유럽으로 수출 중으로, 제품 개발 단계부터 리튬이온전지, 모터 등 국산 부품을 활용한 전기 자전거 공동 개발을 통한 불가리아 및 유럽 시장 진출 필요		
품목명 6	HS Code	8432	수입관세율(%)	0
농기계	수입액('18/US\$백만)	119	대한수입액('18/US\$백만)	0.12
	선정사유	2020년 EU 기금 종료에 따라 기금 소진을 위한 농촌 개선 분야 프로젝트 다수 발주 기대되며, 2019년 10월 기준 농촌 개선 분야 집행률 51%		
	시장동향	불가리아 농기계 시장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노후화된 농기계 교체에 적극 EU 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임		
	경쟁동향	한국은 농기계 수입 28위로 1위는 독일, 2위는 스웨덴, 3위는 프랑스 등임		
	진출방안	EU 기금 농촌 개선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수출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스마트팜	선정사유	국내 스마트팜 기술은 영세 비닐 온실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하여, 한국과 기후 및 농업 여건이 유사한 불가리아에 기술 수출이 유리
	시장동향	올해 5월 정부가 스마트팜 육성정책 수립을 시작하는 등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경쟁동향	불가리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농장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등 스마트팜 시장 형성
	진출방안	불가리아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한국 기술력과 불가리아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활용, EU의 공동 R&D 프로그램을 협력 수행
품목명 2		
미용 교육	선정사유	불가리아 내 한류 및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로 한국식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네일 아트 등 K-Styling에 대한 파생 수요 발생
	시장동향	주로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단편적인 K-Styling에 대한 정보를 공유
	경쟁동향	소피아 내 헤어, 네일, 메이크업 등을 가르치는 뷰티 스쿨이 20여 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진출방안	투자진출 전, 불가리아 주요 뷰티 전시회의 시연회 참가, 온라인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인지도를 먼저 쌓아 진출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필요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 (신규수출기업화) 수출 내수 및 초보기업 대상 불가리아 맞춤형 수출 지원
 - 한-불 상공회의소 등 현지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바이어 수요 발굴
 - 사이버 상담 주선, 이메일 교신 지원, 해외 출장 및 방한 바이어 주선 등
- (지사화) 무역관 전담 직원을 통한 현지 진출 희망기업 연간 지원
 - 소피아 무역관 지사화 전담직원이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직원 역할을 수행
 - 연간 15개사 내외 운영 중이며, 정보조사, 제품 홍보, 거래선 발굴, 업무 연락 등 지원

불가리아 유망 전시회 활용 해외 마케팅 사업

- Areal of Beauty(2020년 9월, 소피아) 연계 융복합(전시회+상담회) 사업 추진
 - 전시장 내 상담 공간을 구성 1:1 비즈니스 상담회 및 전시 관람객 대상 홍보
 - 한국산 제품에 호의적인 불가리아를 교두보로 서유럽 시장 확대 지원
- Auto Motive Expo Soifa(2020년 10월, 소피아) 내 지방기업 홍보관 구성
 - 전시장 내 KOTRA 부스를 설치하여 기업 카탈로그, 샘플 전시 및 상담 대행
 - 지방 KOTRA 지원단과 연계하여 바이어의 방한 상담을 지원 후속 지원

현지 유망품목 특화 무역사절단 운영

- 현지 유망품목(화장품, 의료기기, 자동차 A/S 부품) 특화 무역사절단 구성
 - 자동차 부품(경남), 의료기기(강원) 등 지역 특화 산업을 반영한 무역사절단 운영
 - 국내기업 5~10개사 규모의 소규모 사절단 구성을 통해 상담 매칭 확률 제고

2단계 EU 기금 프로젝트 수주 지원

- 2020년 발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 위주 국내기업의 수주 지원
 - 발주처 네트워크 관리로 시의성 있는 프로젝트 정보를 국내기업에 제공
 - Global Green Hub Korea, Innovation Connect Korea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프로젝트 조달 상담회에 현지 유력 바이어 초청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불가리아 총선	2021.3월	
불가리아 대통령 선거	2021.11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한국-불가리아 국교 30주년	2020	
EU-베트남 FTA 발효	2019~2020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농업	농산물, 농업용 제품, 농기계 등 일체	불가리아 농업 전시회 (Agra Internatinal Agriculture Exhibiton)	2020.2.19 ~ 23/플로브디브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전반	불가리아 자동차 부품 전시회 (Auto Motive Expo Sofia)	2020.10.15 ~ 18/소피아
소비재	화장품, 미용 제품, 미용기기	불가리아 미용 전시회 (Arena of Beauty)	2020.9월(일자 미정)/소피아
소비재	식품류, 가공기기 등	불가리아 식품 전시회 (International Exhibition for Food, Drinks, Packaging and Equipment)	2020.11월(일자 미정)/소피아

부록

對불가리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I. 한-불가리아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불가리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불가리아의 잠재력

- 동·서양의 교차점이자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
 -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유럽, 러시아, 중동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 EU, NATO, WTO의 회원국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 노력
-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외국기업의 투자진출기회 다대
 - 투자유치를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투자자 대상 각종 인센티브 제공
 - 기업 소득세가 10%로 유럽 중 가장 낮으며, 인건비 역시 낮아 투자 매력도 높음
-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으로 향후 시장규모 확대 기대
 - 2014년 상업 은행 도산 위기를 극복, 2015년 이후 3%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
 - 실업률 감소, 1인당 GDP 증가로 가계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수요 증가



주요국의 대(對)불가리아 경제협력 현황

- 과거 불가리아는 무역·투자 등 EU 역내 경제협력 비중이 높았으나, 중국 등 역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주요국의 불가리아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EU	• 조립생산 제품 생산 및 재수출을 통한 EU 역내 교역 비중 높음 * 독일 기업의 백색가전 부품 수입 및 조립하여 재수출 • 역내 수출을 위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 분야 투자진출이 증가 * 2018년 불 투자진출 순위는 (1위) 헝가리, (2위) 네덜란드, (3위) 노르웨이임
러시아	• 공산주의 시절 러시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 러시아 정유회사인 Lukoil이 부르가스에서 발칸반도 내 가장 큰 원유정제 설비를 보유, 러시아산 원유 수입 및 정제하여 판매하여 러시아 수입량이 높음
중국	• 2008년 9,840만 유로를 투자하여 연간 약 5만 대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공장을 설립, 이후 유럽 안전 기준, 환경오염 유발 문제 등으로 2017년 가동 중지 • 불가리아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 증가하는 추세 * 불의 대중(對中) 수입 비중(%) : (2015) 3.7% → (2016) 4.0% → (2017) 3.7% → (2018) 4.1%
일본	• 2006년 Tokushukai Medical Corporation 병원이 소피아에 120백만 유로 병원 설립 • 2007년 Yazaki가 23백만 유로 규모 자동차 부품(와이어링 하네스) 공장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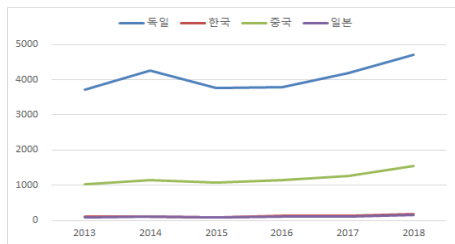


한-불가리아, 향후 양국 간 관심도 및 교역 지속 증가

- (외교) 2020년 한국-불 수교 30주년, 1990년 외교 수립 후 문화, 경제, 통상 등 협력 노력
 - 2019년 9월 25~27일간 보리소프 총리가 불가리아 총리로의 최초로 한국을 방문
- (교역) 교역 규모 2015년 2.1억 불 → 2018년 3.5억 불로 4년간 66% 증가
 - 수출 : 2018년 1.74억 불로 합성수지, 승용차, 전자응용기기, 연제품 등
 - 수입 : 2018년 1.79억 불로 농산물, 동제품, 의류·가방, 수산가공품 등
 - * 한-불 교역 동향(억 불) : (2015) 2.1 → (2016) 2.4 → (2017) 2.9 → (2018) 3.5
- (투자)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투자는 2.2억 달러, 신고법인 26개
 - 전체 투자액 대비 제조업 투자가 73.8%로, 그 외 진출 초기 숙박업 25.2% 차지
 - 1997년 현대중공업의 변압기 제조사 인수, 2011년 남동발전 태양광 발전 투자진출
- (문화) 제31차 세계 태권도 연맹 정기 총회(2020년 10월) 불가리아 소피아 개최
 - 동 기간 세계 태권도 청소년 선수권 대회도 소피아에서 동시 개최 예정

한국-불가리아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불가리아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백만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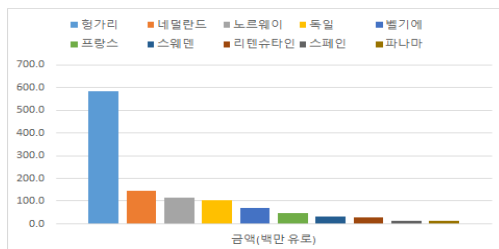
- 2018년 불가리아의 주요국 수입은 독일로부터 47억 불, 중국 15억 불, 한국 1.8억 불, 일본 1.65억 불 규모
- 2017~2018년도 증가율로 비교 시, 한국 39%, 일본 38%, 중국 23%, 독일 12%로 주요국 대비 높은 증가율 추세

2. 대(對)불가리아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플라스틱 제품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 TV	납과 그 제품	인조섬유
중국	보일러, 기계류	전자기기, TV	가구류	일반차량	유기화학품
일본	일반차량	전자기기, TV	보일러, 기계류	광학기기	단백질계 물질

- (수출경합도) 대(對)불가리아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2개 품목, 한국과 일본은 2개 품목이 겹침

3. 대(對)불가리아 투자진출 현황(2018년 기준)



- 2018년 헝가리가 584백만 유로로 투자금액 기준 1위이며, 뒤를 이어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역내국 투자 진출 비중이 높음
- 2018년 한국의 대(對)불가리아 투자는 0.24백만 달러로 신고 기준 법인은 24개이나 16개사 철수, 8개사가 영업 중
- 2018년 섹터별 투자는 금융(623.8백만 유로), 제조(128백만 유로), 행정서비스(51백만 유로) 등의 순임

나. 한-불가리아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불) 산업 발전(특히 제조업 분야)을 위해 투자유치, EU 기금을 활용 하는 정책 추진 → 특히, 산업 전·후방 효과와 고용 창출이 큰 자동차 산업 육성 희망

- (투자유치) 2019년 불 총리 방한, 자동차 및 부품사의 투자진출 희망 표명
 - * 불의 제조업 투자유치(백만 유로) : (2015) 289 → (2016) 268 → (2017) 498 → (2018) 128
- (EU 기금) 불경제성장의 주요 재원으로 경제성장, 산업 발전을 위해 20년까지 배정된 2차 EU 기금 약 103억 유로 전액을 집행할 예정
 - 2차 EU 기금은 2020년에 사용이 종료되며, 미소진 시 잔액은 반납해야 함

불가리아의 2단계 EU 기금 수혜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배정액		
	합계	EU 기금	정부 예산
구조결속지역개발 기금 합계	8,752	7,465	1,287
농어촌개선기금 합계	3,165	2,562	603
기타 기금 합계	295	243	52
총 계	12,213	10,269	1,943

자료 : EU 기금 정보관리 사이트(2019년 10월 7일 기준)

(한) EU 회원국이자 신북방 지역의 교두보인 불가리아와 경험 개발 노력 필요

- (시장 다변화) 수출 다변화를 통한 한국의 미,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 축소
 - * 한국의 G2 무역의존도 : (2015) 39.1% → (2016) 38.3% → (2017) 36.6% → (2018) 38.7%
- (신북방 지역 진출) 불가리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유라시아 진출 유리
 -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하여 러시아 등 신북방 지역 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EU 생산기지 확보) 한국의 생산기지였던 중국을 대체할 新생산기지 확보
 - EU 역내국인 불가리아 내 주력 산업 투자진출을 통한 서유럽 벨류 체인 진입

양국 간 협력 우선 산업 및 한국의 비교우위 역량

양국 협력 우선 산업		한국의 불가리아 대비 비교우위 역량
자동차 부품	농업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서유럽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류 인지도 -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 동유럽 ◆ 전통적 ICT 강국 - IT 국가기술력 세계 1위(Business Insider, 2017년) ◆ 높은 전문인력/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화장품	건강식품	
ICT	보건의료	
기계장비	인프라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2020년 교역액 43천만 달러 달성 목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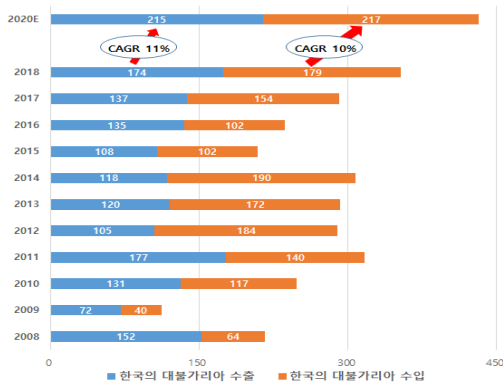
교역액 목표설정 근거

◆ 2020년 양국 교역 43천만 달러 달성(세계 교역규모 85위)

- 2018년 교역 35천만 달러(세계 교역규모 90위) 대비 8천만 달러, 21% 증가치

* 참고로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을 통한 2020년 대상 지역 교역목표는 2,000억 달러

〈대(對)불가리아 교역 추이 및 목표(주1)〉



〈대(對)불가리아 교역 순위 목표(주2)〉

연도	2008년	2018년	2020년(E)
교역	99위	90위	85위
수출	95위	90위	87위
수입	84위	79위	75위

주1 : 2년간 연평균 성장률(수출 11%, 수입 10%) 가정, 단위 USD 백만

주2 : 2009~2018년 한국의 대(對)세계 교역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 2020년 예상치 적용 후 순위 추정

자료 : Global Trade Atlas 무역관 재가공



한-불가리아 미래비전 체계

한-불가리아 미래 비전 체계



양국 경제협력을 통한 2020년 교역 43천만 달러, 교역규모 85위 달성

4대 아젠다

(G2G) 국·기술 분야 협력

(B2B) 협력 강화 품목교류 확대

(B2G) EU 기금 프로젝트 활용

(국민) 상호교류 및 관심 증대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국방, 기술 분야 협력

양국기업은 정부 간 회담 시 교역 확대 논의가 중요하다고 답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9개사)	교역확대 47%	기술협력·이전 40%	기타(공동투자, 인프라 등) 12%
불가리아(29개사)	교역확대 46%	스타트업 협력 16%	기술협력·이전 14%

주 : 설문 답변 기업 대상 중요 순위를 1~2위까지 표시하게 했으며, 상기 비율은 가중치(1위 : 0.6, 2위 : 0.4)를 반영한 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도출한 것임

자료 : 무역관 설문조사 결과(2019년 10월 7일 기준)

(교역 확대) 불가리아 고등 훈련기 교체 등 국방 교역 확대

- 불가리아는 2019년 8월 미국으로부터 최신형 전투기(F-16V)를 8대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 수요 발생
 - 체코에서 도입한 훈련기를 운영 중이나, 노후화에 따라 5년 이후 교체를 계획
- 불 국방부는 단순 훈련기 구매보다는 현지에 조종사 훈련센터 및 훈련기 공장을 건설하여 EU 및 동유럽권으로 수출을 검토 중임

(기술 협력·이전) 국내 유휴 장비 이전을 통한 기술교류 협력

- 불가리아 대학 내 국내 장비 이전 및 관련 기술 습득 수요 존재
 - KOTRA는 소피아 기술대학 내 한국 유휴 장비 무상 이전 및 기술 교육 사업을 추진했으나, 동 사업은 장비 이전에 대한 부과세 문제로 취소됨
- 양국 기술교류를 위한 무상 이전 장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제도 도입 필요
 - 한국과 불가리아 정부 간의 기술 협력 차원에서 한국 유휴 장비 무상 이전 시 예외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 필요

(스타트업 협력) G2G 레벨의 한-불 스타트업 협력 생태계 기반 조성

- 불가리아는 유럽의 소프트웨어 하청개발 1위 국가임
 - 불가리아 내 IT 인재 육성을 위한 Sofia Tech Park을 운영하고 있으며, IT 분야 아웃소싱이 활발함(HP, IBM, SITEL, 코카콜라 기 진출)
- 불 진출희망 스타트업 발굴, 불가리아 내 Sofia Tech Park와 같은 스타트업 육성 인큐베이터 입주 통한 양 국 스타트업 협력 강화

나. [B2B] 협력 강화 품목교류 확대

양국기업은 공통으로 식품 산업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9개사)	식품 20%	화장품 18%	전자 부품 11%
불가리아(29개사)	신재생에너지 12%	기계·장비 11%	식품 8%

자료 : 무역관 설문조사 결과(2019년 10월 7일 기준)

(식품) 주요 전시회 국가관 및 한국 상품전 개최

- 식품 분야 교역 확대를 위한 Seoul Food 2020 내 불가리아 국가관 재개
 - 불 농업부는 2014, 2016년 Seoul Food에 참여, 이후 예산 문제 등으로 참가 중단
 - 2020년 한-불 수교 30주년을 모멘텀으로 불측에 국가관 운영 재개 요청 필요
- 2020년 한-불 수교 30주년 기념, 소피아 한국 상품전 개최
 - 2019년 9월 불가리아 총리 방한 기간, 양국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소피아에서 한국 상품전 개최 논의 및 2020년 3월 개최 목표

(화장품) 유럽 화장품 시장 진출 위한 CPNP 등록 센터 구축

- 2015~2018년 기간 불가리아의 대(對)한국 화장품 수입 평균 86% 급등
 - * 불의 대(對)한국 화장품 수입(단위 : 만 유로) : (2015) 8.8 → (2016) 17.7 → (2017) 37.9 → (2018) 53.9
- 저렴한 CPNP 등록비용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 가능성 존재
 - EU 역내국 화장품 수출을 위해서는 CPNP 등록이 필수, 불가리아 내에서 타국 대비 저렴한 가격에 CPNP 등록 후 서유럽 수출 가능
 - * CPNP : EU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의 약자로 EU 화장품 규정은 해당 사이트에 화장품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한국기업의 식품 수출 성공 사례

◆ 불가리아 건강음료 시장 확대에 따른 한국산 알로에 음료 수출

- 불가리아 바이어는 2008년부터 일용 소비재(FMCG, Fast Moving Consumer Goods)를 수입 유통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기업과의 최초 거래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약 350개의 컨테이너 물량의 한국산 알로에 음료를 수입 중
- 국내업체는 KOTRA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중 '해외홍보지원 서비스'를 이용, 해당 바이어와 협력하여 현지 판촉전 등을 시행하는 등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음

다. [B2G] EU 기금 프로젝트 수주, 주력 산업 투자진출 확대

양국기업은 향후 교역,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협력을 검토 중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한국(9개사)	수출 51%	프로젝트 18%	기술제휴 16%
불가리아(29개사)	수입 46%	프로젝트 15%	수출 14%

자료 : 무역관 설문조사 결과(2019년 10월 7일 기준)

EU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불가리아 시장 진출

- 2014~2020년 불가리아에 배정된 EU 기금은 103억 유로, 2019년 10월 72% 소진(승인 기준)
 - 2016~2018년 기간 대선(2016년), 총선(2017년), EU 집행위 의장국 수행(2018년) 등 정치적 이슈로 프로젝트 입찰 발표 및 기금 집행이 다소 지연
- 기금 중 가장 비중이 크지만 집행률이 낮은 농촌 개선 프로젝트 진출 유망
 - 농촌 개선 분야는 전체 EU 기금의 24%로 가장 많이 배정된 분야지만 19년 10월 집행률 51%(승인 기준)으로 전체 집행률 72%에도 못 미치고 있음
- 한국 농기계, 스마트팜의 농촌 개선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 上
 - (농기계) 농촌개선 기금 가운데 농기계 공급의 비중이 커, 프로젝트를 통한 국산 농기계 수출 가능성이 다대
 - * 불의 대(對)한국 농기계 수입(HS : 8432, 천 불) : (2016) 1.9 → (2017) 3.7 → (2018) 120
 - (스마트팜) 현지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며, 특히 한국 스마트팜 기술은 기후 및 농업 환경이 유사한 불가리아에 적용하기에 유리

자동차 부품 투자진출을 통한 유럽 내 완성차 벨류 체인 진입

- 불 총리 방한 기간, 주력 산업 투자 협력 및 자동차 산업 투자진출 요청
 - 불가리아는 투자유치 통한 제조업 육성 희망, 특히 산업 전·후방 효과 및 고용 창출이 큰 자동차 산업 유치에 관심 높음
- 낮은 투자비용, 유럽과의 높은 접근성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음
 - 기업 소득세율, 임금, 부동산 가격 등이 유럽 국가 중 최저 수준
 - EU 역내국으로 현지 생산된 부품이 서유럽 완성차에 납품하기 용이
- 현지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논의 중, 향후 관련 벨류 체인 형성 기대
 - 유럽 메이저 완성차가 불가리아 내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을 검토 중으로, 향후 불가리아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벨류 체인 형성이 기대

라. [국민] 상호교류 및 관심 확대

인력교류

- (기업) 한-불 산학 연계를 통한 상호 인턴십 파견 기회 확대
 - － 한국 대학과 불가리아기업 간 파트너 구축 통한 한국인 인턴십 해외 파견
 - － 불가리아 대학과 한국기업 간 파트너 구축 통한 불가리아인 인턴십 국내 파견
- (기관) 양국 교육기관(대학교, 사설 기관 등) 간 학생교류 프로그램 확대
 - － 양국 대학의 유관학과 간 교환 학생 운영 등 양국 학생 간 교류 기회 확대
- (정부) 양국 정부 기관 간 행정 노하우 교류 프로그램 신설
 - － KOTRA와 불 투자청(IBA, Invset Bulgaria Agency)은 불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 투자 지원 제도 노하우 교류를 위한 MOU 체결
 - － KOTRA는 불가리아 투자청 대상 투자자 원스톱 서비스, 외국인 투자 ombudsman 등 Invest Korea의 주요 투자자 지원 제도 노하우를 전수 예정

문화교류

- 2020년 한불 수교 30주년을 기념, 한류콘텐츠(춤, 노래, 화장 등) 행사 개최
 - －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대사관 주재 K-Pop, 한국 식품 행사 등 개최
 - － 현지 미용 전시회 등을 연계한 화장품 등 K-Beauty 전시관 운영
- 세종학당-소피아 대학 한국어학과 협업 통한 온라인 한국어 강좌 신설
 - － 현지 TV 한국 드라마 상영 등 한류 열풍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
 - － 온라인 한국어 강좌를 신설로 현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접근성 개선

Ⅲ. 향후 對불가리아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민관 합동 Task Force 구성, K패키지 타당성 점검

- 정부, 유관기관, 기업의 구체적 수요를 반영한 K패키지 마련
- 국내기업의 투자진출, 국방 교역, 프로젝트 수주 수요 반영

② 양국 담당기관 지정 및 과제별 수행 분과 개설

- 양국 담당기관 지정, MOU 체결을 통한 과제별 분과 구축
- 담당 분과 지정을 통한 이행 전문성 강화, 과제 중복에 따른 비효율 제거

③ 한-불가리아 경제협력위원회 정례화 통한 이행 점검

- 2020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모멘텀으로 제1회 한-불 경협위 개최
- 한-불 경협위의 정례화로 과제별 이행 현황 및 수행 애로사항 논의 및 해결

4대 아젠다							
(G2G) 국방 및 기술 분야 상호협력		(B2B) 협력 강화 품목교류 확대		(B2G) EU 프로젝트 활용, 투자진출 확대		(국민) 상호교류 및 관심 증대	
① 국방 교역 확대		① 국가관 운영		① EU 프로젝트 수주		① 인적교류	
한국	불가리아	한국	불가리아	한국	불가리아	한국	불가리아
KAI	MDRB	KOTRA	BSMEPA	KREI	MAFF	KOTRA	IBA
KODITS	MERB	SBC	ITC	KPIA	MERB	MOE	MES
② 기술교류		② 한국 상품전 개최		② 자동차 산업 투자진출		② 문화교류	
한국	불가리아	한국	불가리아	한국	불가리아	한국	불가리아
MSIT	MES	KOTRA	MOE	KAMA	IBA	MCST	MOC
KOTRA	TUS	SBC	BCCI	KAICA	NCIZ	KOCCA	ITC
③ 스타트업 협력		③ CPNP 인증센터 운영					
한국	불가리아	한국	불가리아				
KISED	STP	KOTRA	MHRB				
SBC	BSMEPA						

KOREA	BULGARIA
KAI :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MA :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OCCA :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AICA : Korea Auto Industries Coop, Association SBC :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KOTRA : Korea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Agency MCS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REI :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PIA : Korea Plant Industries Association KODITS : Korea Defense Industry Trade Support Center MOE : Ministry of Education, Korea KISED :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MSIT : Ministry of Science, Information & Technology	MDRB : Ministry of Defence of the Republic of Bulgaria IBA : Investment Bulgaria Agency MCRB : Ministry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Bulgaria MERB : Ministry of Economy of the Republic of Bulgaria MHRB : 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Bulgaria TUS : Technical University, Sofia STP : Sofia Techpark ITC : Inter Expo Center, Sofia BCCI : Bul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AFF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Forestry BSMEPA : Bulgari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gency MES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NCIZ : National Company Industrial Zones

한-불가리아 상생협력 요약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정지윤	과장	소피아무역관	+359-2-969-5030	jjunj@kotra.or.kr

KOTRA자료 20-052

2020 국별 진출전략 불가리아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98-2(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